

코스피 불장에 지역 주식 투자 붐...개인·법인 참여 확대

지난해 연말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

지역 주식 소유 72만8천명...전년비 3.4% ↑
인구비 비율도 ↑...광주 1.2%·전남 0.8% ↑

코스피가 7천300선을 돌파하며 연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법인 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의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개인·법인 주식 소유자는 총 72만7천9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70만3천866명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광주는 38만3천113명에서 39만5천599명으로 3.1% 증가했으며 전남은 32만753명에서 33만2천889명으로 3.8% 늘었다.

특히 인구 대비 주식 소유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광주는 2024년 27.2%에서 지난해 28.4%로 1.2% 포인트 증가했으며, 전남 역시 17.9%에서 18.7%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역 내 주식 투자 참여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반면 보유 주식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보유 주식 수는 2024년 15억2천625만2천1주에서 지난해 15억1천988만8천857주로 줄었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1.5%를 기록했다.

전남 역시 11억4천988만5천789주에서 10억8천880만4천61주로 감소했고 비중은 1.1% 수준에 머물렀다. 투자자 수는 늘었지만 1인당 보유 규모는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이재명 정부 이후 이어진 증시 호황과 투자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국 주식 소유자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2천727곳의 소유자

는 약 1천456만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총 주식 수는 약 1천174억주며 1인당 평균 약 8천66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 지분은 여전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 주도 연령대는 50대였다. 해당 연령대 투자자수는 333만명으로 전체의 23.1%, 보유 주식은 194억주로 34.4%에 달해 자산과 영향력 모두에서 핵심 투자층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고금리 불경기 영향으로 20세 미만 미성년 투자자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주주는 76만9천624명으로 전체의 5.3% 수준이다. 전년 7만3414명(6.5%) 대비 줄었고 보유 주식도 3억596만주에서 2억9천627만주로 감소했다.

20세 미만 주주가 가장 많이 몰린 삼성전자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삼성전자의 20세 미만 주주는 34만3천694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3% 감소했다. 보유 주식 수 역시 1천606만주로 17% 줄었다. /안태호 기자



코스피 7천 돌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증가 기준 7천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95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전국 500개소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한국전력(한전)이 공공기관 K-RE100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변전소 여유부지를 활용해 500개소에 총 95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한전은 6일 "송변전 유류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 공급에만 활용되던 변전소 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지, 조경부지, 자투리땅 등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능한 약 500개소를 발굴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보유한 유류자산을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공공기관 K-RE100의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지형 변전소의 수목 조경부지를 태양광 설비로 전환할 경우 산불 확산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재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전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전남 TF를 구성해 올해 1MW 규모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030년까지 총 9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 K-RE100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 유류부지를 활용한 95MW 태양광 구축은 에너지 대전환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K-RE100 대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광주상의, 안전케어플러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전보호구 지원...산업재해 예방 강화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 광산구 소재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케어플러스(Safety Care+)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자치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광산구가

주관해 추진되며, 개인 맞춤형 안전보호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한 5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공장등록 제조기업으로, 2026년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체온유지 보호구 ▲근골격계 보호구 ▲방음 보호구 등 안전보호구 구입비 지원이며, 지원금은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김경호 광주상의 전무이사는 "이번 안전케어플러스(SafetyCare+) 지원사업이 고위험 제조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수준을 높이고, 근로자가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안정적 전력수급체계 구축·에너지대전환 선도"

전력거래소, 김성진 신임 이사장 취임

전력거래소는 6일 나주 본사 대강당에서 김성진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성진 신임 이사장은 국가 에너지안보를 지탱하고 전력-에너지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실현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핵심과제로 ▲안정적 전력수급체계 최우선 구축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혁신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를 위한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지역별요금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와 산업의 연결 ▲사람에 투자하는 전력거래소로의 근본적 혁신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전력거래소의 첫 번째 사명은 안정적 전력수급체계"라며 "유연성 자원이 제대로 보상받는 다양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전력거래소는 국가안보이

자 산업경쟁력이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전력공급의 본질적 변화의 중심에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은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현실이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성공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노동조합과 경영의 동반자로 함께하고 노·사 화합·소통 기반 공동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임채만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